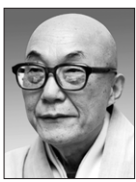


일주 문



한국의 불화 완간 기념 석정연목전 불화장 석정 스님은 10월 9-13일 부산 국제신문문화센터 4층 제1전시실에서 <한국의 불화> 완간 기념 '석정연목전'을 개최한다.(051)500-52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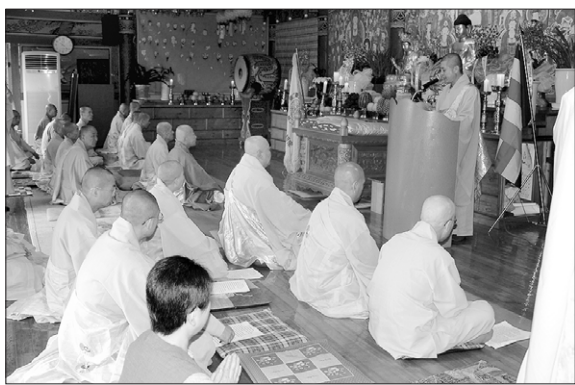
동국대 경주캠퍼스 교직원 법회 양산 통도사 주지 정우 스님은 10월 10일 오후 4시 동국대 경주캠퍼스 정각원에서 봉행되는 교직원 정기법회에서 '생활 불교인의 자세'를 주제로 법문한다.



개관 4주년 기념식·경로축제 광진노인종합복지관 화행 스님은 10월 5-31일 복지관 및 남이섬 등지에서 개관 4주년 기념식 및 경로축제를 개최한다.(02)466-6242



중앙승가대서 무료 건강검진 불교의료지원단 반갑다연우야 구자선 단장은 10월 11일 김포 중앙승가대학에서 동국대 일산병원의료진과 확인스님을 위한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한다.



법상종 연수교육·수계법회 봉행

대한불교법상종(총무원장 해월)은 10월 1-3일 안성 쌍미루사에서 연수교육 및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종정 자봉 스님, 총무원장 해월 스님, 부원장 도일 스님 등 중단임원스님을 비롯한 종도 80여명이 참석했다. (사진)

자봉 스님은 "육심을 버리고 무명의 연막을 넘는 수행자의 역할을 다하자"고 당부했다. 회향식에서는 6명의 수계의식이 진행됐다.(031)653-1250

화측 조계종 중앙총회 양진수 사무행정팀장은 10월 20일 낮 12시 서울 행복웨딩문화원에서 권명숙 양과 화측을 밝힌다. (016)210-6426

부고 ▲불레협 장현재 교육원장 부친상=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 장현재 교육원장(진선여고 교사)의 부친 장환경 응이 지난 9월 26일 별세했다. 향년 87세. 발인은 9월 28일 분당 차병원에서 입수했다. ▲불교신문 이진두 논설위원 상배 =불교신문 이진두 논설위원 부인 홍애련 여사가 9월 30일 향년 62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고인은 10월 2일 부산시립 화장장에서 영면에 들었다.

“불자·시민 더불어 사는 세상으로”

충주지역에 ‘자비의 전화’ 개설한 구부사 주지 혜원 스님

“일반 시민이나 불자 누구나 ‘손잡고 더불어’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상담 전화를 개통하게 됐습니다.”

충북 충주 구부사 주지 혜원 스님(사진)이 시민들을 위한 상담 전화 ‘자비의 전화’를 개설했다. ‘손잡고 더불어’를 캐치프레이즈로 개설된 자비의 전화는 지난 9월 18일부터 불자들의 신행과 고민 상담, 교리공부는 물론 일반인들의 고민상담, 청소년들의 진로상담 등 다양한 상담활동을 펼치고 있다.

“충주 지역은 아직 불교세가 많이 약하고, 불교에 대한 인식 또한 무속 신앙과 혼재되어 잘못 알려진 측면이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을 바로 잡고, 현대인들의 고민을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풀어보려는 것이 자비의 전화의 목적입니다.”

지난해 상담전화 개설의 원을 세운 혜원 스



스님은 올해 초부터 사무실을 마련하고 상담원들의 교육을 진행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 충주시 호암동 세경아파트 상가에 중

틀튼 충주 자비의 전화는 9월 18일 개원법회를 봉행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스님을 비롯해 전문 상담원 2명과 청소년 상담을 위한 불자 교사 4명 등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상담에 임하고 있다.

“상담자 대부분이 깊은 고민에 빠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늦은 저녁이나 새벽에 전화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처님의 따뜻한 자비의 손길로 이들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좀 더 밝고 살맛 나는 세상이 되지 않을까요?”

혜원 스님은 “자비의 전화는 일반 시민들이나 불자 누구나 편안한 마음으로 이용할 수 있다”며 “6개월간의 시범운영 후 충주지역 사찰들과 연계해 상담 지역을 충북권으로 넓힐 계획이다”고 밝혔다. (043)852-3227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손녀들 품에 다시 안아봤으면”

10월의 환우 김근순씨



남편과 사별한 후 이혼한 둘째 딸과 손녀를 돌보며 살던 김근순(65·사진)씨. 가슴 통증을 호소하던 김씨는 지난 8월 혈관 스텐트 삽입 수술을 받던 중 급성대동맥 박리증(혈관 내막이 찢어져 혈관이 아닌 통로가 만들어지는 질환)과 쇼크 상태로 인해 응급수술을 받을 정도로 어려운 상황을 겪었다.

하지만 수술 후 급성호흡부전 증후군, 신부전, 간부전 및 범발성 혈관내응고증 등이 발생해 또 다시 집중치료를 받고 있다. 정부보 조금 17만원과 사무실 보조일로 받는 수입 50만원으로 생활하고 있는 둘째 딸에게 한 달에 1000만원이 넘게 드는 치료비는 감당할 수 없는 집이다.

김씨가 귀여운 손녀들과 다시 만날 수 있기 위해서는 후원자들의 도움이 절실하다.(02)734-8050 후원계좌: 농협 053-01-243778 예금주: 생명나눔

일동양대 학생 복지체험 수료식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이사장 각현)은 9월 17-21일 일본 동양대학교 학생 29명의 복지현장 체험을 실시하고 21일 안성 캠퍼스에서 수료식을 개최했다. 동양대학교는 2005년 연꽃마을과 자매결연을 맺은 곳으로, 이번 실습에는 학생 29명과 교수 3명이 참가해 봉사활동과 재가서비스 체험 등을 체험했다.

“투자의 해법 부처님 가르침 속에...”

투자학 강좌 여는 우승택씨



너도나도 ‘재테크’ 열풍이다. 주식도, 아파트도, 평도 모두 재산증식을 위한 ‘투자’로 인식되고 있다. 이윤의 극대화를 목적으로 하는 ‘투자’와 마음을 찾는 것이 최종 목표인 ‘불교’가 만난다면 어떨까?

투자전문가 우승택씨(삼성증권 자선리닉센터장·사진)가 10월 11일부터 11월 8일까지 진행하는 ‘투자는 아니다, 유식(唯識)으로 하는 투자학’ 강좌에서는 부처님 가르침을 바탕으로 한 투자심리학을 소개한다. 강좌는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서울 종로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다.

“유식의 투자전문가 앙드레 코스탈라니는 ‘주식시장은 99%가 심리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를 것 같다’는 생각에 주식을 사고, ‘내릴 것 같다’는 생각에 파는 것이죠. 이러한 생각, 곧 자기 자신을 바로 알게 해주는 것이 ‘유식’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바로 알면 투자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이 우씨의 지론이다.

“유식은 마음세계를 밝혀 놓는 도리입니다. 단순화해서 설명한다면 모든 것이 생각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뜻이기도 하지요. 유식을 통해 나를 알게 되면 생

각의 지도를 설계할 수 있게 되고, 자신의 기질에 맞는 투자를 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강좌는 총 5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첫 번째 시간인 ‘투자심리와 행태’는 투자심리학 이론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는 시간이다. 두 번째 시간에는 앙드레 코스탈라니의 투자심리학 이론을 불교의 심리학 관점에서 풀어 설명한다. 세 번째와 네 번째 시간에는 각각 율리안 오닐과 워렌 버핏의 투자 비법을 공개한다.

마지막 시간에는 그간 배운 투자이론을 어떻게 실천에 접목할 것인가를 소개한다. 1시간 30분간 강의한 후 30분간 질의응답 및 개인 투자 상담도 진행한다. 참가비 25만원은 전액 조계종 중앙신도회 전법회관 건립 기금으로 적립된다.

“적어도 5년만 지나면 우리 사회는 투자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문제는 ‘어떻게’ 투자하느냐입니다. 투자의 양도는 내가 누구인 줄 알고, 적이 누구인 줄 알고, 무기가 무엇인 줄 알고, 전쟁터가 어디인 줄 아는 것입니다. 안다는 것은 ‘식’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투자를 위한 해답이 바로 ‘유식(唯識)’에 있습니다.” (02)735-2428

여수령 기자

서울시립은평복지관 노인의날 기념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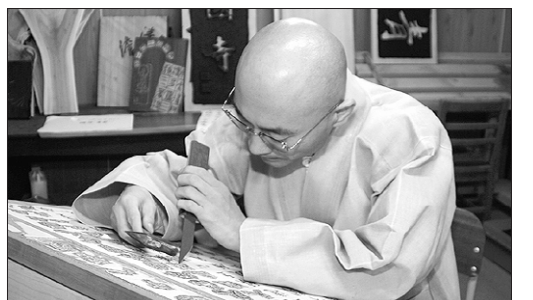
서울시립은평노인종합복지관(대표이사 성윤)은 10월 4일 복지관 야외무대에서 제11회 노인의 날 기념식 및 파발가을음악회를 개최했다. ‘노인의 날(10월 2일)’을 기념해 열린 이날 행사는 서울 문화재단 뿌리파에술단의 식전행사를 시작으로 11시 기념식과 오후 2시 파발가을음악회 등으로 진행됐다.

석문사 ‘어르신 경로위안잔치’ 개최



청원 석문사(주지 혜전)는 10월 3일 청원군 남이면사무소 복지관에서 제4회 어르신 경로위안잔치를 개최했다. 이날 잔치에 어르신 50여명을 초청해 전통스쿠터도 전달했다. 효예종 총무원장 법진 스님과 지역 어르신 1000여 명이 참석했다.

조계사 지도법사 본공 스님 서각 전시회



서울 조계사 지도법사 본공 스님의 서각 전시회가 9월 27일부터 10월 3일까지 예술의전당 서예박물관에서 개최됐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대대고승들의 유묵 작품들을 관조의 눈으로 재창조해 서각이라는 틀에 담아 40여점을 선보였다. 본공 스님은 제5회 대한민국의사예술포럼 심사위원, 대한민국의사예술포럼 심사위원 등을 역임했다.

열린종교인모임 친선 축구대회 개최



열린종교인모임(공동대표 심산)은 10월 1일 부산 가톨릭대학 운동장에서 화합을 위한 친선 축구대회를 개최했다. 불교와 천주교, 기독교, 원불교 수행자 및 지도자 100여명이 참가한 이날 축구대회는 4개팀의 리그전으로 진행됐다.

속리산 제1회 달마축제에 초대합니다

달마축제 행사프로그램

날짜 : 2007년 10월 20일 / 장소 : 속리산 달마선원



◆신명나는 명상공부(오전 10시 ~ 12시) 범주스님의 禪강의와 생활속에서 쉽게 할수있는 명상 배우기

◆국악과 함께하는 선차(禪茶) 행다시연(오후 2시~4시) 1.대금연주 정광선(중요문화재45호 이상강류 대금전수자) 2.상주 삼백 다우회 시연(최 위영 회장 외 10명) 3.보천차 시연(지민스님 외 10명) 4.부산 선문화원(박 건자 회장 외 5명)

※ 달마축제기념 범주스님(선묵 특별전시회) 40여년 선묵 정진의 흔이 담긴 선묵 작품을 소장할 수 있는일년중 단 한번의 기회(50% 특별할인)

※ 지역주민생생 무공예 농산물 직판장 다양한 토속음식 시식코너

◆소리와 춤의 향연(저녁 6시 ~ 8시)

(제1부) 1.달마 포퍼먼스 범주스님(그림·달마선원장) 효성스님(음악·선다향 예술원장) 김종홍(목조각·묵석원원장) 임미영(춤·무용학원원장) 2.고구려소리춤 공연 효성스님(고구려 소리춤 보존회 전수자) 임미영(고구려 소리춤 보존회 단장)외 5명 3.하회탈춤 김종홍(하회별신굿 탈놀이 보존회) 이상호(하회별신굿 탈놀이 보존회) 권태경(하회별신굿 탈놀이 보존회)

(제2부) 구도자의 노래 천년의 소리 범진스님(법계의 명인) 천상의 노래 보현스님(타래의 저자) 하모니카의 명인(월연스님) 노래하는 법사 머무다래 관세음을 닮은 가수 이혜미, 지리산선녀 고명숙

(제3부) 풍류의 한미당 세상의 모든 번뇌 망상을 떨치고 모두가 달마와 하나되는 신명의 한미당. 풍악소리에 해탈의 춤을 추며 속리산의 대자연과 하나되는 풍류의 시간



주소 : 경북 상주시 화남면 동관리 294번지 속리산 달마선원

전화 054)535-0378 / 팩스 054)535-4750 e-mail : www.dharma-art.or.kr